

## 양돈산업의 국제경쟁력과 정보화 문제

지난해 12월 15일 7년여만에 GATT의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의 타결로 우리나라 농축산업은 앞으로 개방화에 따른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 타결에 따르면, 우리나라 축산업은 내년부터 유제품과 닭고기 및 돼지고기가 관세만 약간 인상시켜 일정량씩 수입하게 되어 있다. 특히 돼지고기의 경우에 내년부터 97년 6월말까지 “최소시장접근” 물량만을 들여 오다가 1997년 7월 1일부터 관세 33.4퍼센트로 완전 개방하게 된다.

우리나라 축산업의 개방화에 따른 문제점은 가격경쟁력과 품질경쟁력 문제이다. 특히 다른 축종보다 그래도 가격경쟁력 수준이 나은 편이라는 양돈산업의 경우에 돼지 생산비를 기준으로 할 때 우리나라는 대만보다 20퍼센트나 높고, 미국보다는 60퍼센트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양돈산업이 가격 경쟁면에서 국제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수입관세를 감안하더라도 현재 수준의 생산비를 적어도 20퍼센트 이상 절감해야 한다. 정부의 양돈산업 국제경쟁력 제고 방안을 보면, 사육규모의 확대와 경영합리화를 통하여 2001년에는 돼지 생산비를 90kg 기준으로 22퍼센트까지 절감하기로 되어 있다. 앞으로 우리나라 양돈산업이 국제경쟁력을 제고시켜 개방경제하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생산비 절감에 지속적인 노력이 있어야 한다. 특히 적정사육두수의 확보와 합리적인 경영문제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합리적인 양돈 경영에서 필요로 하는 모든 자료나 정보가 과학적으로 처리되어 이를 바탕으로 공격적인 양돈산업으로 발전되어야 한다.

양돈경영은 다른 생산 과정에서와 같이 경영 내외부에서 나오는 관련된 경영정보의 범위가 매우 넓고 다양하다. 즉 양돈경영과 관련하여 사료관리, 생산관리, 재무관리, 노동관리, 위생방역 및 환경관리, 시장관리, 판매관리 등은 모두가 합리적으로 분석되어 판단되어야 할 중요한 정보 부문이다. 합리적인 양돈경영으로 생산비를 절감하고 국제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양돈농가의 내·외부에서 나오는 관련된 자료나 정보가 항상 저장되었다가 양돈농가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위해 언제든지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정보를 사용할 수 있게 되어야 한다. 다행히도 요즘 급속도로 보급되고 있는 “개인용 컴퓨터”의 유용성은 매우 높다. 많은 관련 자료나 정보를 저장하여 필요한 정보를 언제든지 신속하게 이용할 수 있고, 이를 이용하여 특정한 양돈경영 상태를 신속하게 판단하여 과학적인 정보나 자료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다. 앞으로 양돈경영에서 합리적인 경



## 김영철 교수

(건국대 축산경영학과)

### □ 필자 주요 약력

- 농어촌발전위원회 위원
- 한국협동조합학회 회장('91~'92)
- 한국농업경제학회 부회장(현)

영을 통하여 생산비를 절감시켜 보다 많은 이윤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양돈농가에 “개인용 컴퓨터”를 널리 보급하여 이를 통해 과학적인 정보관리 체계가 구축되지 않으면 안된다. 정부에서도 정책적으로 과학적인 양돈경영을 위하여 농가에 개인용 컴퓨터 보급과 이의 활용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야 한다.

농가수준에서 앞으로 양돈경영과 관련하여 개인용 컴퓨터가 많이 보급되어 유용하게 활용되기 위해서는 다음 몇가지 중요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안된다.

첫째는 값이 싼 개인용 컴퓨터 “Hardware”의 개발 보급 문제이다. 요즘 우리나라에서도 자료처리 속도와 기억용량이 매우 높은 개인용 컴퓨터가 계속 개발되고, 가격도 대폭 절하되고 있는 추세는 다행스런 일이다.

둘째는 농가의 양돈생산과 관련하여 생산에서부터 경영은 물론 가공, 유통, 판매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유용한 “Software”의 개발 보급 문제이다. 아무리 좋은 “Hardware”를 개발·보급했다고 해도 직접 농가에서 양돈경영과 관련하여 모든 문제들을 풀어갈 수 있는 다양하고 사용하기 쉬운 양돈관련 “Software”가 개발되어 보급되지 않고서는 양돈산업의 컴퓨터화는 이루어질 수 없다.

셋째는 정부에서 종합적인 축산 정보시스템과 함께 구체적으로 양돈 정보시스템을 하루속히 구축하는 문제이다. 정부는 우리나라는 물론, 해외관련 정보를 망라하는 축산업 종합 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생산, 가공, 유통, 판매, 소비에 이르기까지 “데이터 베이스”를 구축하여야 한다. 이를 지역 축산 정보센터와 연결시킴으로써 농촌지도소나 축산관련 단체는 물론 양돈 농가에서 “터미널”을 통하여 언제든지 필요한 정보나 자료를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는 양돈농가를 상대로 하는 대대적인 교육 홍보 문제이다. 양돈농가가 일상 생활에서부터 자금관리나 생산 및 판매관리에 이르기까지 개인용 컴퓨터의 유용성과 효율성에 대하여 대대적인 홍보와 함께 대 양돈농가 컴퓨터 교육이 대폭적으로 확대되어야 한다. 앞으로 우리나라 농촌사회가 컴퓨터화 되고, 특히 축산부문이나 양돈산업 부문이 생산에서부터 소비에 이르기까지 모든 정보기술 체계가 “전산 시스템”을 통하여 과학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용될 때에 우리나라 축산업과 특히 양돈산업의 국제경쟁력은 그만큼 높아질 것이다.